

2021

고3 3모

2021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설홍전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사자 **홍사(紅絲)**(붉은 물을 들인 실. 옛날에, 도둑이나 중한 죄인(罪人)의 두 손을 뒷짐지어 묶는 데 쓰는, 불고 굵은 줄. 부스럼의 독기(毒氣)로 그 언저리에 나타나는 붉은빛의 핏줄)를 내어 **홍(주인공 '설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사자의 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설홍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음**)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 하리오. **사자(저승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사람 없는 빈산에 외로이 비치는 밝은 달)**(**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이제 가면 언제 불교.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자연물을 바탕으로 드러냄**)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저승으로 향하는 길이 매우 험난함**)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드러냄**) 그러구려 **염라국을 돌아드니**(**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함**)(**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철성(鐵城)을 돌렸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혹좌혹립(或座或立)**(**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서기도 함**)하였더라. 그러구려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몽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크게 놀람)**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아이의 이승에서 행적을 밝힘**)(**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략)

그러구려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궁궐의 분위기를 묘사함**)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염라대왕의 모습을 묘사함**)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적강 모티프)**](**설홍이 원래 천상계의 사람이었으나 천상계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간계에 내려왔음을 알 수 있음**)(**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인간계에서의 설홍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어려서 부모를 여임)**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 이어나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1**(설홍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2**(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3**종실직고(사실 그대로 고함)하라. **4**(염라대왕이 설홍에게 위협적 태도로 죄상을 케물음)”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5**소자(설홍)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6**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 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7**(자신이 한 짓이 아님을 밝힘)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8**(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우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 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9**(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함)(설홍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 밖에는 다시 아뢴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10**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11**(설홍의 말을 받아들임)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설홍전'

## ■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 성격 : 비현실적, 교훈적
- 주제 : 저승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설홍
- 특징
  - ① 이승에서 저승으로 향하는 험난한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됨.
  - ② 인물이 겪는 고초를 사실적으로 드러냄.
  - ③ 대화를 통해 인물이 고초에서 벗어나게 됨.

## ■ 이해와 감상

작자·연대 미상의 고대소설. 1권 1책. 국문 필사본·활자본. 활자본은 1929년 [영창서관]에서 간행하였다. 영웅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중국 명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울곡기념도서관 나손문고(舊 金東旭 소장본)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반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고행담과 결연담을 엮어 놓고, 후반에서는 남자주인공의 영웅담을 엮어 놓은 전형적인 영웅소설이다. 여자주인공 왕운선의 부친인 왕승상이 노비에게 피살되고, 그 노비가 왕소저를 검탈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노비와 주인공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자주인공 설홍이 왕승상의 몽중교시를 받고 왕소저를 검탈하려 하는 노비를 죽이고 왕소저와 가연을 맺는 것도 남녀 주인공들의 새로운 결연과정이다.

아우가 형의 복수를 하려다 설홍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스승이 제자의 복수를 하려다 설홍에게 살해되는 것도 특이한 구성이다. 남녀 주인공의 고행담은 영웅소설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 작품에서는 특

히 시련이 여러 번 중첩되어 나타나고, 초월세계를 넘나들며 동물로 변신까지 하는 등 주인공의 시련과정이 독특하게 제시되어 있다. 시련이 중첩되고, 선계(仙界)를 드나드는 등 구성이 독특한 작품이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328-5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3.26

가격 500원

값 500원

55710



9 791137 703285

ISBN 979-11-377-0328-5 (EPUB2)